

풍력지구 지정전 파트너 선정 우려감 표출

사업자측 “불확실성 크고 절차 복잡” 문제 제기 도 “약속 이행 감시 차원... 우선시 해야 하는 가치” 어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2차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은 그동안 발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관리 가능하도록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 고시안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사업예비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내 풍력개발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돼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에게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부

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합동개발방식이 단순 자본금 투자만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등을 제주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

록 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풍력 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자측 한 토론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자를 공모하면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사업자들에게 매력 없고 절차가 복잡해 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차원에서 3차례의 심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에서 우선시 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1·2차 토론회 결과 를 바탕으로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풍력발전지구 인·허가 권한을 민간한테 넘겨 주려고 하니 문제가 됐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전에 민간 파트너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조직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9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국기자

민주당 균형발전위 발족 송재호 의원 위원장 맡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위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조오섭 간사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지방소멸 해법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외국인 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비 4억7000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지역, 추자면)으로 확대해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 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대로그 기자

‘행복 서귀포시’ 생애단계별 특화교육

교육협력 플랫폼·진로축제평생학습박람회 발표회 신규 운영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비중 70% 상향... 학생 참여 극대화

올해 시정 목표를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잡은 서귀포시가 사회구성원의 생애단계별 건강 증진을 위한 특화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협력 플랫폼과 진로축제 평생학습박람회·발표회 등 신규 사업을 전개해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일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첫 ‘교육협력 플랫폼 실무위원회 회의’를 갖고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과 협약을 교육협력 플랫폼을 통한 학생건강, 맞춤형 교육, 진로교육, 생태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본격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예체능(몸 건강, 마음 건강) 프로그램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올해 70%로 상향·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시민건강 교육프로그램 12개를 올해 건강식 만들기, 플라멩코 등을 포함해 20개로 대폭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협약을 통해 미래 사회구성원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몸 건강 마음 건강 토탈케어’를 올해 중점의제로 채택했다”며 “교육협력 플랫폼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 협력사업의 성과가 속속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국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8기 선발

만15~34세 청년 대상 오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 최대 21개월간 취·창업 역량 강화 위한 교육훈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이달 탐나는인재 8기를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15~34세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일반분야(다양한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실현을 희망하는 청년) 60명 내외, 디지털분야(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실현을 희망하는 청년) 15명 내외이다.

2023년 교육과정은 ▷(1단계-기본교육, 3개월) 기본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1단계-심화교육, 3개월) 2단계 연계 취업 업(業)프로젝트 및 창업·디지털 분야 교육 ▷(2단계-진로경험, 3개월) 취·창업 실습 연계 ▷(3단계, 12개월) 취·창업 실현이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최대 21개월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도내의 기업 연계 실무 실습을 거쳐 취·창업 연결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센터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50만 원 상당의 훈련수당 및 프로젝트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기존 탐나는인재 교육과 함께 도내 일반 청년 대상 진로·직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증진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탐나는인재 8기 모집에 도·내외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올해 신설하는 도내 청년 진로·직무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독일 수입] 120년의 역사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owerful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산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검색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 전량 좋은 신종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탐나는봉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사라향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아레조생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제라몬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미니향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 (신규 20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한라농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